

호랑이 '고척 악몽' 탈출...양현종 93승

<지난 시즌 1승7패>

<타이거즈 좌완 최다승>



KIA, 넥센 2-1 잡고 2연승

고척 돔 첫 위닝시리즈

4일만의 등판 양현종 6연승

김민식 3루타·김호령 2득점

KIA 타이거즈가 '고척 악몽'에서 탈출하며 20승에 선착했다.

KIA 타이거즈가 3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2-1 승리를 거두며 가장 먼저 20승 고지를 넘었다. 올 시즌 5전 전승으로 넥센과의 '전적' 관계를 정리한 KIA는 지난해 1승7패의 전적을 안겨줬던 고척돔에서의 첫 위닝시리즈도 만들었다.

컨디션 난조를 보인 팻틴을 대신해 하루 앞당겨 출장한 양현종이 승리의 주역이었다. 양현종은 6연승 행진 속에 통산 93승을 채우며, 김정수 KIA 재향코치의 통산 92승을 넘어 타이거즈 좌완 최다승의 주인공이 됐다.

1회 첫 타자 이택근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시즌 6번째 등판을 출발한 양현종은 삼자범퇴로 첫 이닝을 막았다. 2회 선두타자 윤석민에게 좌측 2루타를 맞았지만 이후 세 타자를 범타로 돌려세웠다.

1-0으로 앞선 3회 2사에서 이택근에게 내야안타를 내줬지만 역시 다음 타자 이정후를 좌익수 플라이로 처리하며 이닝을 종료했다.

다시 한번 선두타자를 내보낸 4회, 발 빠른 주자 서건창이 루상에 있었지만 윤석민에게 5-4-3으로 이어지는 병살타를 유도하며 순식간에 투 아웃을 만들었다.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이범호의 실책으로 2사 2루의 위기가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김민성을 3루수 땅볼로 처리했다.

5회에도 양현종의 위기관리 능력이 돋보였다.

송성문과 김하성에게 안타를 맞으면서 1사 1-2루. 그리고 1루 견제를 하던 양현종의 공이 뒤로 빠지면서 1사 2-3루가 됐다. 그러나 양현종은 자신이 만든 위기를 스스로 정리했다. 노련한 이택근을 상대로 스탠딩 삼진을 뽑아낸 양현종은 이정후의 좌익수 플라이로 실점 없이 5회를 마무리했다.

양현종이 6회를 삼자 범퇴로 마무리했지만 7회 2사에서 김재현과 김하성에게 연속해서 안타를 내주며 마지막 고비를 맞았다. 전날 수비 싸움에서 승부가 갈렸던 두 팀의 표정이 다시 한번 같았다. 유격수 김선빈이 이택근의 깊숙한 타구를 쫓아 땅볼로 둔갑시키며 양현종의 실점을 막았다.

타선에서는 8번 김호령과 9번 김민식이 승리 도우미였다. 0-0으로 맞선 3회초 1사에서 불넷으로 출루한 김호령이 김민식의 우전 안타 때 3루까지 진루했다. 그리고 이명기의 1루수 앞 땅볼 때 홈을 파고들었다. 주심의 판정은 아웃이었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김호령의 손이 먼저 베이스에 닿으면서 세이프로 결과가 바뀌었다.

1-0의 아슬아슬한 리드가 계속되던 7회에도 김호령이 득점을 더했다. 2사에서 김호령이 불넷으로 출루한 뒤 김민식의 타구가 우익 선상을 꺾었다. 빠른 속도로 김호령이 홈에 들어왔고 타자주자 김민식은 3루에 안착하면서 1타점 3루타가 기록됐다.

김윤동은 두 경기 연속 세이브로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윤동은 8회 2사 1-2루에서 박지훈에 이어 마운드에 올라 김민식에게 1타점 적시타를 맞기는 했지만 중견수 플라이로 추가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대타 채태인에게 안타를 맞으며 시작한 9회, 두 타자 연속 삼진에 이어 중견수 플라이로 승리를 위한 마지막 27번째 아웃카운트를 잡으며 20승 선착을 이끌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3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7 타이거뱅크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넥센 히어로즈의 경기. KIA 선발 양현종이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FC 무승부...안방 무패 행진

K리그 클래식 9R 주현우 선제골에도 강원 FC와 1-1



광주 FC가 연승에는 실패했지만 홈 무패 행진은 이어갔다.

프로축구 광주 FC가 3일 광주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강원 FC와 2017 K리그 클래식 9라운드 홈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앞서 안방에서 '대어' 전북 현대를 잡으며 반전에 성공했던 광주는 강원을 상대로 연승에 도전했지만 본즈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했다. 연승은 무산됐지만 올 시즌 FA컵 포함 안방에서 치른 5경기에서 3승2무를 기록, 안방 무패는 계속됐다.

올 시즌 K리그 클래식 무대로 복귀한 강원과의 3년 만의 맞대결. 선제골은 승격 선배 광주가 기록했다.

전반 10분 공세를 알리는 슈팅을 날렸던 주현우가 전반 21분 득점의 시작점이 됐다. 코너킥 상황에서 키커로 나선 주현우가 문전으로 길게 공을 띄웠다. 그리고 상대 수비수를 피해 뒤에서 돌아 들어온 187cm의 장신 외국인 선수 본즈가 머리로 강원의 골망을 흔들었다. 2년 차 본즈의 K리그 데뷔골이 기록되는 순간이었다.

이어 강원의 반격이 이뤄졌다. 전반 31분 황진성과 문창진이 빠른 템포로 공격을 전개했지만 골키퍼 최봉진이 슈퍼 세이브를 선보이며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전반 36분 역습 상황에서 광주의 골대가 뚫렸다. 강원 오범석의 패스를 받

은 임찬율이 논스톱 슈팅으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후 후반전 양 팀은 부지런히 서로의 진영을 오가면서 힘겨루기를 했다.

후반 10분 전북전 승리의 주역인 여봉훈이 낮게 깔려가는 대포알 슈팅을 날리며 다시 한번 주인공을 꿈꿨지만 아쉽게 공은 골대를 맞고 튕겨나갔다. 강원의 공세가 매서워지자 광주 남기일 감독이 교체카드로 분위기가 반전을 노렸다.

후반 16분 주현우를 빼고 정호민을 넣으면서 진영을 가다듬은 남기일 감독이 후반 21분에는 전방에 투입했던 김민혁을 대신해 스피드가 좋은 조성준을 그라운드로 올려보냈다. 후반 27분에도 이민기를 대신해 임대준을 기용하는 등 선수들의 부상과 강행군으로 인한 '체력 열세'를 만회하려고 했지만 아쉽게 경기는 1-1 무승부로 끝났다.

남기일 감독은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체력적인 열세"로 인해 연승을 이기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체력적인 부분과 미드필드 싸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김민혁을 전방에 기용했다"고 밝힌 남기일 감독은 "강원이 3일 전에 경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를 전에 경기가 있어서 체력적으로 힘을 얻었다. 부상선수도 있어서 기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다. 여러 선수가 고루 터져줘야 한다. 그런 점에서 선수들이 헌신하고 있는 모습이 좋다. (했지만 홈 무패를 기록했는데) 홈에서 팬들에게 더 좋은 경기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0.04초를 줄여라

김국영 男 100m 10초12 기록해야 세계선수권 출전

오늘부터 전국육상선수권

한국을 대표하는 스피리터 김국영(26·광주광역시청)이 남자 100m 한국 신기록에 도전한다.

올해 8월에 열리는 런던 세계선수권 대회 출전권이 걸린 기록이라 더 긴장한다.

대한육상연맹은 4일부터 8일까지 경북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제46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 런던 세계선수권대회 대표 선발전을 겸한 대회다. 하지만 국제육상경기연맹이 정한 기준 기록을 넘지 못하면 대회에 나설 수 없다.

런던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100m 기준 기록은 10초12다. 2015년 베이징 세

계선수권,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의 10초16보다 0.04초 빠른 기록이다.

김국영은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 10초16의 한국 기록을 세우며 세계선수권과 올림픽 출전권을 동시에 따냈다. 그러나 기존 기록이 더 강화되면서 새로운 한국기록을 세워야 런던 대회 출전권을 만난다.

남자 100m 경기는 대회 첫날인 4일에 열린다.

남자 200m 박봉고(26·강원도청), 남자 높이뛰기 이상혁(21·서천군청), 남자 포환던지기 정일우(31·성남시청), 남자 110m허들 김병준(26·국군체육부대), 여자 100m허들 정혜림(30·광주광역시청) 등 종목별 정상급 선수들도 이번 대회에서 주목할 선수들이다. /연합뉴스

호날두 헤트트릭...레알 결승행 성큼

챔스리그 4강 1차전 아틀레티코에 3-0 완승

역시 '슈퍼스타' 호날두였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통산 101~103번째 골을 한꺼번에 터뜨리며 레알 마드리드를 결승행의 유리한 고지로 올려놓았다.

호날두는 3일 오전(한국시간) 스페인 에스타디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2016-2017시즌 유럽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 레알-아틀레티코의 '마드리드 데비' 홈 경기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호날두의 원맨쇼를 앞세워 3-0으로 완승했다.

호날두는 이날 카림 벤제마와 함께 공격수로 나섰다.

경기 초반부터 아틀레티코를 압박하던 레알은 전반 10분 상대 수비수가 걸어진 공을 카세미루가 이를 논스톱으로 크로스했다. 공은 한 번 마운드 뒤 골대 정면으로 갔고, 호날두가 어느새 수

아오르며 정확히 헤딩으로 꽂아넣었다.

전반 29분에는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벤제마의 바이시클 킥이 어지는 날카로운 크로스를 하기도 했다. 1-0으로 앞서나가던 후반 28분에는 호날두가 벤제마의 패스를 받은 뒤 오른발 강력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호날두는 후반 41분 루카스 바스케스의 패스를 받아 헤트트릭을 작성했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개인 통산 101-102-103번째골이다. 2007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펠 당시 AS로마(이탈리아)를 상대로 1호골을 넣은 이후 챔피언스리그 138경기째 만에 103골을 쐈었다.

8강에서 발목이 잡힌 FC 바르셀로나 리오넬 메시(94골)와 9골차로 늘었다.

이번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10골을 기록하면서 6시즌 연속 10골 이상의 기록도 작성했다. 또 11골에서 멈춘 메시에 1골차로 바짝 다가서며 5시즌 연속 득점왕도 눈앞에 있다. /연합뉴스